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환율은 전일 대비 1.9원 하락한 1,171.4원으로 마감

전일 환율은 비둘기파적 FOMC에도 불구하고 위험 회피 심리로 낙폭이 제한되어 1,17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전일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비둘기파적 FOMC 결과에 장초반 1,160원대 후반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앞둔 경계감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지속됨에 따라 이후 환율은 반등했다. 정오 무렵 BOJ의 통화정책 동결 소식에 따른 역외 롱스탑이 달러화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으나, 엔-원 롱플레이를 위한 달러 매수세가 하락 압력을 상쇄해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1.9원 하락한 1,171.4원에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이날 BOJ의 통화정책 동결로 달러-엔이 급락함에 따라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전일 대비 19.14원 상승한 1,124.62원에 거래되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68.50	1172.50	1167.40	1171.40	1170.1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06.43	1131.08	1099.48	1123.31

금일 전망

브렉시트 우려감 강화되며 1,170원대 초반 등락 전망

금일 환율은 다음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강화되며 제한적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은 전일 대비 1.35원 상승(스왑포인트 고려)인 1,173.5원으로 마감하였다. 비둘기파적 FOMC와 BOJ의 통화정책 동결에도 불구하고, 금일 환율은 위험회피심리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일 밤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하는 영국 노동당 의원이 브렉시트 찬성파에 의해 피살됨에 따라 국민투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달러화 강세 압력 역시 제한되며 금일 환율은 1,170원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일 달러-엔 환율이 약 22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함에 따라 금일 역시 엔화 강세가 예상되나 일본 당국의 구두개입으로 그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67.33 ~ 1178.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42.52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35원상승
- 美 다우지수 : 17733.1, +92.93p(+0.5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9.7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971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